

광주시, 기술혁신 'G-유니콘기업' 지원 강화

5개사 선정... 사업화 지원금 확정 대상 '에니트'... 해외·투자유치 지원

광주시가 기술혁신 창업기업인 'G-유니콘 기업'을 전폭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최대 3억원을 지원하는 'G-유니콘 육성사업'에 참여할 기술혁신 창업기업 5개사를 선발, 경진대회를 거쳐 사업화 지원금을 확정했다.

'G-유니콘 육성사업'은 지역 내 누적 투자유치액 5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한 기술경쟁력과 성장 가

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확장(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성장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올해 창업기업에 충분한 사업 확장 기간을 제공하고자 'G-유니콘 육성 프로그램'을 지난해보다 4개월 앞당겨 시행하고 있다. 또 시제품 제작과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지원금도 지난해 최대 2억원에서 올해는 최대 3억원으로 확대했다. 특히 광주시는 올해 면밀한 평가를 통해 유망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경진대회 방식으로 변경했다. 24개 참여기업에 대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 3차례 발표평가를 통해 외부전문가와 시민평가단의 심사를 거

쳐 최종 5개사를 확정 선발했다.

혁신성과 성장성이 기대되는 인공지능(AI) 기반 창업기업이 다수 선발됐으며 △재난안전 및 에너지효율화 인공지능(AI) 솔루션 기업 '에니트' △생체정보 인증과 결제 통합솔루션 기업 '고스트패스' △환경 중심적(eco-central) 생물농약 전문기업 '젠153바이오텍' △인공지능(AI) 실시간물류관제 최종구간(라스트마일) 자동화 솔루션 기업 '클라우드스톤' △중고평품 플랫폼기업 '팜팜' 등 5개 기업이다.

광주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10일 'G-유니콘창업기업 경진대회'를 열어 사업화 지원금을 확정했다.

대상은 '에니트'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고스트패스'와 '젠153바이오텍', 우수상은 '클라우드스톤'과 '팜팜'이다. 사업화 지원금은 대상 3억원, 최우수상 1억원, 우수상 5000만원이 주어진다.

광주시는 사업화 지원금 외에도 세계(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투자유치, 대기업과 개방형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지원을 통해 창업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선발된 7기 G-유니콘 기업 5개사는 신규고용 16명, 매출액 26억원 증대, 투자유치 184억원 달성, 지식재산권 41건 출원·등록, CES 2024 혁신상 수상 등 우수한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에스에스랩은 'G-유니콘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상장 전 지분투자 단계에서 176억원의 투자유치를 손조롭게 마쳤고, 지난 4월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에서 3년6개월만의 '코스닥 상장'이라는 큰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광주시가 키우는 G-유니콘의 놀라운 경제적 성과들을 기반으로 우리지역 유망 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며 "국내를 넘어 세계적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김영록 도지사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환영"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전남 출생수당 등 지방소멸 대응책과의 시너지를 기대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지사는 지난 10일 '정부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발표를 환영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지난 9일 대통령께서 저출생 극복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하신 데 대해 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 신설되면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위기 극복의 사령탑으로서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인구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손에 잡히는 정책을 추진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함께 인구정책에 보다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남도·시군 318 출생수당 올해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의 조

속한 협의 △인구 대전환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0~17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원 '국가 출생수당 도입' △범국가적 저출생 대응에 기여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지원율 상향 및 재정인센티브 확대' 등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전국 최초로 0세부터 17세까지 18년 동안 도와 시·군이 각각 10만원씩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 출생수당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아이낳고 키우는 행복한 삶의 터전, 전남'을 비전으로 22개 시·군과 '전남도·시·군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김 지사는 지난 9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전남도·시군 318 출생수당'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전향적이고, 조속한 사회보장제도 협의와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도록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곽지혜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2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고향을 방문한 재충북호남향우연합회 회원들에게 도정 현안에 대해 소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충북호남향우회원 대상 도정설명회 개최

고향사랑기부금 등 소통 강조 김영록 "향우, 고향발전 동반자"

전남도는 12일 목포와 완도 일원을 방문한 재충북호남향우회원을 대상으로 도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고향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출향 도민의 애乡심을 높이고 교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행사에는 조광철 충남호남향우회 수석부회장 등 향우회원 6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도정설명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해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등 도정 현안을 소개하며 향우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재충북호남향우회원들은 미래 전남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약속하는 등 전남도와 더욱 소통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 회원들은 각별한 애정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전남도에 기탁하고, 향우회원들과 가족, 지인들이 참여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신청서를 전달했다.

조광철 수석부회장은 "고향의 수려한 경관과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완도와 목포를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고, 고향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김영록 도지사님의 따뜻한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전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관광문화대전의 성공 개최와 국립과과대학 유치 등 오랜 숙원이 해결되도록 충북호남향우 모두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고향의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두 팔 걷고 나서 주시는 출향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남의 영원한 동반자이자 후원자인 향우들과 더 긴밀히 소통해 지방인구소멸 위기로부터

고향을 반드시 지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으로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로 가입한 향우들은 전남사랑도민증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된 목포해상케이블카를 할인된 금액으로 탑승하며 충북도민들에게도 전남도의 선진 시책을 알리겠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출향 향우를 대상으로 고향방문과 도정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류와 소통의 통로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전남에 애정을 갖고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인구를 늘려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남도의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서포터즈에게는 250여개 도내 할인가맹점 혜택과 남도장터 1만점 쿠폰과 전남의 관광, 축제 등 유익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의회, 상무대로 지중화사업, 예산 12억 확보

안전 확보·도시 경관 개선 기대

상무대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착공이 연 내 가능하게 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광주시청에 대한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상무대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12억원을 증액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 의원은 "광주시는 송정역에서 송정고가교까지 어지럽게 얽혀있는 통신선 지중화를 위해 올해 본예산에 10억원을 세웠으나 한국전력공사 규정인 공사 착공조건에서 12억원이 부족하여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며 추가 예산편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송정역은 광주의 관문으로 하루에도 수만 명이 드나들고 있어 광주의 첫 인상을 담당한다.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경관을 개선하여 광주에 대한 이미지 제

고가 필요하다"며 "지중화사업은 도시 미관 개선뿐만 아니라 화재사고 등 위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사가 완공되는 2025년은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열린 전 세계 선수단과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다"며 "역사 주변 공사가 대회 개최 이전에 손조롭게 마무리되어 송정역을 통해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상무대로 송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해 지난 2022년 한국전력공사 및 6개 통신사와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비 총 179억원 중 8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을 앞두고 한국전력공사 사업 착공 조건인 사업부담금 30%이상(26억원) 납부가 안 돼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김은지 기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7월1일 출범식

국가폭력 피해자·가족 등 치유 오늘 제주서 개관 안내 설명회

행정안전부와 광주시는 광주와 제주에서 운영되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활동 시범사업을 5월 말로 종료하고, 한 달간의 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1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출범식을 개최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치유센터는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치

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치유센터는 2021년 12월에 제정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에 본원, 제주도에 본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서구 옛 국군광주통합병원 인근에 위치하고, 총 107억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올해 4월 준공했다.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치유센터 이용자와 5·18유공자, 유족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치유센터 개관 및 이용 안내 설명을 광주에

서는 지난 10일 개최했으며, 제주에서는 13일에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개관하는 본원 위치 안내, 상담실 및 프로그램실 내부 공간 구성, 치유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5월 시범사업 종료 이후 사무공간 이전,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시스템 정비, 자료 이관 등 한 달간의 준비 사항 및 향후 치유센터 운영방안에 대해 설명했고, 이용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고, 심리 회복 지원을 위해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전남일보 #jnilbo